

## 1992년도 도서관계의 회고

도서관진흥법이 통과된 후 1년여의 경과 속에 도서관정책부서인 문화부의 역할에 대한 도서관계 모두의 기대가 컸던 한 해 이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직제개편으로 침체되었던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도약에 대한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과장급 인사에 사서직을 대거 임명하는 것등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발전에 매우 고무적이라고 여겨진다.

문화부와 한국도서관협회의 공동으로 제2회 '전국도서관인 큰모임'을 통해 '국가도서관정책의 진단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강연과 토론회를 갖고 우리나라 도서관발전방안을 모색하였으나 대체로 소극적인 한 해였다고 볼 수 있다.

도서관진흥법에 의한 문화부장관의 도서관 정책자문기구로서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도서관기능의 효율적수행을 위한 시책을 심의하는 도서관발전위원회(위원장: 김동호 문화부 차관) 위원을 학계, 도서관계, 출판계에서 18명과 관계부처 당연직위원 10명등 30여명을 7월 24일 위촉하여 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 도서관시설확충, 자료확충 및 운영의 현대화, 도서관진흥기금조성등을 논의하는 기구가 늦게나마 출범되어 그 활동에 거는 기대는 자못 컸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월 25일부터 데이콤의 천리안 II를 이용하여 '83~'91년까지의 문헌정보학분야 학위논문 및 단행본에 대해 도서관을 자주 이용해야 하는 자들에게 가정이나 사무실에 설치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무료로 신속, 간편하게 도서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서지표준과내 한국문헌번호센터는 한국문헌번호편람(ISBN·ISSN) 증보판을 펴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국제표준자료번호, 즉 한국문헌번호 제도는 '91년도에 도서(ISBN)와 '92년에 연속간행물(ISSN)에 걸쳐 이제 완성된 체제를 갖춘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어 출판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

된다.

또한 어느 도서관에서나 도서관업무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도서관업무전산화 PC패키지 "KOLAS"(Korean Library Automation System)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발하여 4월부터 전국 문헌정보학과(도서관학과) 및 도서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는 국내 모든 도서관을 하나의 망으로 연결하여 문헌정보를 공동으로 구축·이용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문헌정보학에 관련된 자료 및 각종 도서관에 대한 정보 및 운영실무자료 등을 비치하여 전국도서관직원, 문헌정보학과학생, 교수 및 도서관에 관심있는 도서관인을 대상으로 연구 및 토론하는 장이 될 수 있는 '도서관문화자료실'을 11월에 개관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도서관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그동안 숙원이었던 '도서관정보관리편람'을 펴기 위한 위원회(위원장: 사공철 교수)가 2차에 걸친 모임을 갖고 장별집필자를 결정하여 집필중이며, 분류위원회(위원장: 권기원교수)는 '한국십진분류법' 개정작업에 각 도서관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되는 협회내 각 위원회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한국정보관리학회, 서지학회 및 한국문헌정보학회가 공동으로 '문헌정보학의 최근동향'이라는 주제아래 연구된 논문을 발표하는 등 각 학회의 활동과 각 대학 대학원에서 다수의 석·박사학위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도서관정책수립 및 시행에 대한 문화부의 적극적인 자세 위에,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 및 문헌정보학계 등의 공동 노력이 성실히 이루어질 것을 밝힌 새해에 기대하여 본다.

(권기원/성균관대학교 교수)